

#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사랑의 개념과 사랑의 교육적 함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논의

송은신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I. 서론

21세기는 이전의 핵심적인 가치관이었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모더니즘(Modernism)’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성보다는 ‘감성’,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나 기준보다 개인의 가치관과 각자의 개성을 피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다. 또한 이러한 사상이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며, 20세기말부터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조성국, 2016: 638).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하였으며, 개인적인 감정과 표현이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졌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주장과 근거보다는 개인의 생각과 견해가 우선시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는 달리 객관적인 판단이나 이성보다 주관적인 생각과 감성이 우위에 있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개인의 감정과 생각, 가치관을 주요한 가치로 여기고 객관성을 상실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와 사상에 미혹되고 잠식되기보다는 신앙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 진리인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분별하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와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대 사회는 절대적 진리와 규범, 그에 대한 기준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중 하나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안과 밖의 경계가 없어지고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한미라, 2013: 17-18).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은 이전부터 고정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와 그에 기반한 가치관과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관점과 견해를 중요하게 여기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대적인 진리와 규범을 인정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사상은 혼란을 가중시키며 절대적인 가치관과 사회윤리, 기준의 상실을 야기 시킨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것, 즉 극단적 개인주의, 공격

성, 성적 착취, 물질주의 등에 고착되어 있다. 게다가 포스트모더니즘은 개인이 가치를 취사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Brummelen, Harro V, 2010: 73).

그리스도인들은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 신앙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 세상의 반 기독교적인 사상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여러 요소에는 유일신인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으며 이는 인간의 주요 과업이자 삶의 핵심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교육’ 활동에도 예외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현재의 교육사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크리스천 교육자들은 이러한 교육사조에 대응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교육관을 정립하도록 도와야 한다.

“포스트모던이 가져온 문화-사회적 변화는 교육의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았으며 이에 다양한 대안적 교육 비전이 모색되어 왔다. 현대 교육학의 혼란은 일면 근대성에 뿌리를 둔 구성주의가 해체를 하는 특성으로 하는 포스트모던시대의 교육학 이론의 중심에 있다는 역설이 잘 보여준다. 구성이나 해체 모두 건축에서 빌려온 은유이며 표면적으로는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의 교육이 분명히 통일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신국원, 2013: 45).

상기한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교육계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교권의 무력화,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 조례 등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에 반(反)하는 정책과 법들이 제정되고 시행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은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의 교육에도 전반적으로 막대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는 이들이 대다수이며 이와 더불어 교육계에서는 사제 간의 신뢰와 상호존중관계가 점차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기독교교육이 신앙적 관점에서 바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기류에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비 신앙적인 세계관에 맞설 수 있어야 하겠다. 현재의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산재한 문제를 바로 잡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독교적 가치의 바른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 즉, “사랑은 기독교교육의 구조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 (조성국, 2019: 203). 교육은 ‘인간’을 향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교육자로서 학생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학생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형성하는데 도구이기 때문이다”(인유진, 2020: 167).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하여 기독교적인 가치와 세계관의 함양이 필요한데, 교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들의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러하다.

“기독교교육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사회가 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나가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박상진, 2011, 47).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는 그릇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인한 공허함과 혼돈을 겪고 있다. 절대적인 진리와 규범의 해체, 분열로 인하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 시대의 참된 가치와 진리의 왜곡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사랑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참된 사랑과 정의, 평화의 가치에 대한 부재가 일어났으며, 이와 더불어 인간성의 상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의 판단조차 희미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Olthuis(2012: 6)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의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류 역사의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새롭고 풍부한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이나 맹목적인 기회가 아니라 은혜와 진실에 의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비전은 기독교 포스트모던 세계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의 핵심을 요약한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겉손 속에서 목격하는 비전이며, 진실을 소유한 사람들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폭에 압도된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공유하고 참여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서 말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한다. 교사의 세심한 돌봄과 사랑이,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그들을 좋은 방향으로 감화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매우 광범위한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상적 배경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Mouw(2014: 157)는 좋은 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좋은 교사는 진심으로 자기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가르침이라는 것이 일차적으로 강압에 의존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무관심한 자세로도 결코 가르칠 수 없는 법이다.”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태도로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학생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크리스천 교사로서 늘 주님과 함께 하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교육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다.

## II. 포스트모더니즘

### 1. 구조주의

구조주의는 스위스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의 ‘구조주의 언어학’이라는 학문으로 인하여 더욱 잘 알려져 있으며, 비단 언어학 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 예술 등의 사상,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기능하였다.

“구조주의는 소쉬르와 레비스트로스에 의해 시작된 현대 유럽 철학의 이론이다. 문화적 구조를 통해 사물의 의미가 정의 된다는 논의에서 출발한다. 특히 기존의 서양 철학에서 개념 규정의 틀이 된 이항대립의 정의를 문화적 구조를 통해 설명한다” (이정훈, 2018: 36).

구조주의는 현대 유럽 철학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며, 잘 알려져 있는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구조주의 사고체계는 주체의 탈중심화이다. 현상의 주체(subject)를 설정함에 있어 인간주의(humanism)가 아니라 구조주의(structuralism) 입장을 지닌다. 이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인간의 위치를 중심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인간은 더 이상 ‘모든 존재의 척도’가 아니라 구조의 한 요소가 되어 전체보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 (양주혜, 2020: 72).

탈중심화는 문자 그대로, 주체와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바로 이러한 개념이

구조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 체제라는 것이다. 구조주의는 주체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구조’를 대체하려고 하였다. 비단 학문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주체를 잃어버리게 하였다. 탈 중심화를 통하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심’에서 탈피하여 주체적인 사고와 활동을 제재하려고 한 것이다. 이처럼 구조주의는 주체에서 벗어나 탈 중심화를 추구하였다. 수많은 맹점에도 불구하고 구조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한 축을 담당하였다. 구조주의 철학은 포스트모던 사상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후기 구조주의로 이어지게 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말과 사물」에서 구조주의 언어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구조는 가시적인 것을 제한하고 걸러냄으로써, 가시적인 것을 언어로 기록할 수 있게 한다” (Foucault, 2012: 205) 라고 말하였다. 뒤이어 “재현을 통해 혼란스럽고 동시적인 형태로 마련되는 것이 구조에 의해 분석되고, 따라서 언어의 단선적 전개에 적합하게 된다” (Foucault, 2012: 206)고 설명하였다. 한편으로 푸코는 구조주의의 틀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였다. Mills(2012: 32)는 푸코가 「지식의 고고학」에서 의도한 바를 밝히면서 독자의 자유로운 사고를 통한 다양한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덧붙여 푸코는 이를 제재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였다.

“푸코의 대중성에 기여한 또 다른 특징은 그가 하나의 완벽한 이론적 체계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체계화된 구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유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독자들이 자신의 책을 읽을 때 노예처럼 자신이 한 말을 졸졸 쫓아오지 말고 독자들 마음대로 이해하길 권고한다.”

독자의 자유로운 사유와 해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성을 강조한 푸코의 견해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하겠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중심이 되는 것, 혹은 저자나 주체자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해체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시각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구조주의의 탈중심화는 다른 의미의 탈중심화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독자적이고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이다. 그러나 구조주의의 인간을 사고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탈중심화는 기독교 사상과 상치된다. 한편, 신을 벗어나 인간의 주체만 강조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기독교 사상과 상치된다. 구조주의의 탈중심화, 르네상스, 계몽주의의 -사상은 모두 기독교 사상과 맞지 않는 한계가 있다” (양주혜, 2020, 74-75).

구조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여느 사상과 마찬가지로 탈 중심화로 인한 반 기독교적 성향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다. 이처럼 포스트모던의 사상적인 흐름은 기독교와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향하였으며 현재에도 사회 전반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 2. 상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사상 가운데 ‘상대주의(relativism)’ 라는 개념이 있다. 상대주의는 개인의 생각과 주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자 그대로 ‘상대(相對)’ 적인 것들을 인정하고, 이와 상반된 지점에 있는 ‘절대(絶對)’ 적인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각자의 생각과 판단, 견해, 사상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을 형성하는 일에 이러한 ‘상대주의’ 개념이 주요한 몫을 감당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용어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양승권(2007: 104)은 상대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상대주의는 인식·가치·지식의 상대성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 인식할 수 없고 다만 인식하는 자의 의식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는 학설이다. 모든 가치는 주관적인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 상대적일 뿐이며, 일체의 진리·규범·가치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상대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인 개념이나 객관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생각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주의는 이러한 포스트모던적인 가치관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절대적 진리와 기준, 규칙 등을 인정하기보다는 각자의 판단과 주관적인 해석, 의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상대적’ 으로 절대성과 보편성을 가지는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 원리들의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그리고 상대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철학자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이다.

“니체는 독일 작센주 뤼켄에서 5대째 목회자인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와 동생을 잃고 엄격한 할머니, 엄마와 누나 사이에서 자라났다. 어려서는 ‘작은 목사’ 라고 불릴 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종교심이 강한 가족 내 여성들이 만든 억눌린 분위기가 타인지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기독교와 점점 멀어졌다” (정소영·이연임, 2020: 143).

니체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으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가족들을 통하여 경건한 기독교적

가풍을 가진 집안에서 양육되었지만 성장한 이후에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다. 그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학문을 구축하였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의 저작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용찬, 2000: 273).

“니체는 무신론의 대변자였고 그의 철학적 견해는 허무주의에 맞닿아 있었다. 그가 “신은 죽었다”고 말한 것은 그저 계시 종교를 그럴듯하게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실재를 부인할 때 어떻게 의미와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보여 주려 한 것이다” (Mouw, 2014, 80).

니체의 사상은 엄연히 신, 특히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후세에 그의 철학을 계승한 많은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이 기독교의 계명과 윤리에 반대되는 학문을 연구하는 일에 일조하였다. 더욱이 니체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그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하지만 니체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인간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바로 니체이다” (김석환, 2019: 134).

Hollingdale(2018, 13)은 “니체가 그의 저서에서 내세운 주장들은 언제나 그가 어린 시절에 교육받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현저하게 다르다는 인상을 준다” 라고 서술하였다. 니체는 자신을 지칭하기를 “나는 안티크리스트이다……”(Nietzsche, 2002: 380) 라고 하였다. 이처럼 그는 자신을 ‘안티크리스트’라고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으로 부정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의 반 기독교적 사상은 근본적으로 니체의 철학에서 유래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그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사상을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니체는 현재의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사상이 형성되는 기초를 제공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다. 니체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상대주의는 니체가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19세기부터 21세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축을 담당한다. 현대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양태인 상대주의가 다방면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상대주의는 비단 19세기에 활동했던 니체로만 그치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 전반에 작용하고 있다.

### 3. 해체주의

‘해체주의(Deconstructivism)’ 사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축을 담당함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체계와 사상, 정신세계의 전복을 의미하였다.

“해체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커다란 우산 속에 있는 몇 개의 현대적 문학비평 중의 하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 특징이, 정전(canon)이 없고, 답이 없으며 중심이 존재하지 않고 교과서가 없으며 윤리나 도덕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때 해체주의의 전략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범주 속에 있는 여권주의, 마르크스주의, 문화 유물론 등은 모두 기존의 제도나 사상을 해체하고 전복하는 기본 요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설희, 2015: 7).

해체주의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사상의 토대와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며,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적인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해체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이상들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추구하려는 역동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시의 적절하게 등장한 사상이었다. 기존에 존재했던 이성적인 사고방식과 관습, 인식보다는 개방적인 가치관으로 이 사회를 대하려고 하였다.

해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는 프랑스의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인데, 신국원(2001, 240)은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이론적인 기초가 튼튼하고 방법론적으로도 치밀한 고도의 지적 행위다” 라고 하였다. 데리다는 1930년에 알제리에서 출생하였으며 그의 집안은 프랑스로 귀화한 유대인 가문이었다. 알제리는 1965년에 8년간의 전쟁 끝에 독립하였는데, 그는 이 과정에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폭력적 사고방식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 이후에는 서구 중심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러한 성장 배경이 데리다의 철학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데리다는 파리 고등 사범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한 이후에 기존의 서구 철학의 전통 노선을 잘 따르지 않고 기존의 철학 노선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비판하였으며, 특히 서구의 이성의 울타리에 대하여 그 안에 있는 철학 세계는 어떻게 해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Peeters(2019, 919)는 “데리다가 해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 중 하나는 우정에 대한 전통적인 담론들로부터 거의 틀림없이 도출되는 “가정적이고 형제애적인, 따라서 남성 중심의” 그 정치적 입장이었다” 라고 하였다. 또한 데리다가 주창한 해체주의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차연(差延·différance)’이다.

“데리다의 해체론은 무엇보다 차이의 철학, 더 정확히는 차연(差延, différance)의 철학으로 명명할 수 있다. 차연의 철학이 등장하는 사상사적 배경으로 두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현상학이며 다른 하나는 구조주의다” (한국프랑스철학회, 2020: 394).

데리다의 철학 사상에서도 구조주의적인 성격이 드러났으며 이는 ‘차연’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일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데리다는 ‘차연’에 대하여 “이 차연은 현존 자체를 현재로나,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드러낸 적이 없다” (Derrida, 1996: 123) 라고 말하였다. 뒤이어 “밖으로 나타내면서 사라지면서 사라짐 자체를 나타낸다. 나타나기 위해 모든 모험을 감수하지만, 끝내는 사라짐 그 자체가 된다” (Derrida, 1996: 124) 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는 이미 차연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는, 어떤 것의 현전지가 아님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연은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 마치 존재하는 양 표상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 차연은 존재도 아니며 본질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것은 존재하는 혹은 부재하는 모든 존재자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Derrida, 1996: 124).

데리다는 그가 주창한 차연 또한 영속하지 않으며 소멸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차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無)’의 개념인 것이다. Derrida(1996: 149)는 자신이 주창했던 중요한 개념인 ‘차연(差延 · différanc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첫 번째 결과는 차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연이 비록 훌륭하고, 독특하고, 중요하며, 혹은 초월 선형적이라 하더라도, 차연은 현전자가 아니다. 이것은 무이며, 아무 것도 통제하지 않으며, 그 어느 곳에서나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다. 차연이 군림하는 왕국은 없지만, 차연은 모든 왕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선동한다. 이 사실은 왕국을 갈망하고 왕국의 과거와 미래의 현존에 대한 욕망을 지닌 우리들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위협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포에 떨게 만들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동시에 항상 왕국의 이름하에 차연을 접근 통제하기를 갈망하면서, 대문자로 표시함으로써 차연에게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왕국이 부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데리다는 자신의 학문적 바탕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차연’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무(無)의 상태로 여겼다. 유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소실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차연’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모순적인 견해를 가졌다.

“니체 사상의 핵심은 차연으로 위장한 대리인의 우회로와 계약으로 발생하는 증후군을 진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존 속에 있는 물자체를 그대로 현전함을 진리 벗기기로 간주하여 끊임없이 해석하고 대치하는 역동적인 해석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진리가 없는 수사들, 진리라는 가치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수사들의 체계란, 포함시키고 기술하고 경계를 정하는 기능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차연은 서로 상이한 힘이 빚어내는 ‘역동적이고도’ 유동적인 갈등으로, 형이상학의 철학 문법의 전 체계가 문화나 철학 그리고 과학을 관장할 때마다, 이에 맞서 니체가 정립한 것이다” (Derrida, 1996,

143).

데리다의 견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니체가 후세기의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재홍(2013: 117)은, 해체주의가 현재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해체는 구조주의가 확고하게 믿었던 기표와 기의의 상관관계를 거부하고, 기호의 재현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이며 동시에 실천이다. 이후 동일성에 대한 회의, 과학과 이성의 절대성에 대한 거부, 개체의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분법적 사고로 소외되었던 타자와 주변부에 대한 새로운 각성 등으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해체라는 용어는 거의 모든 학술적·예술적 영역에 적용되는 차원을 넘어 주류 미디어에까지 널리 확장되고 있다.”

19세기 니체의 철학에서부터 출발하여 데리다에 의하여 형성된 ‘해체주의’는 현재에도 미술, 패션, 무용, 건축, 언어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에 있어서 ‘해체주의’는 21세기에 이르러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상이라고 하겠다.

#### 4. 다원주의

21세기 현대 사회는 이미 다원주의 사상이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다원주의는 현 시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사회, 정치, 문화, 예술, 미디어 등의 여러 분야에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원주의는 “단일한 탐구의 기준이 존재한다고 믿는, 서구 지성사의 지배적 주류였던 ‘객관주의’(objectivism) 또는 ‘보편주의’(uni-versalism)와 대비되는 시각이다” (노양진, 2004: 156).

성창환(2019, 240)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의미의 일의성 보다는 다원성을, 동일성보다는 이질성을, 단수성보다 복수성을 주장한다. 말하자면 어떤 것에 한 가지 의미만 찾고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찾고 부여하며, 또 의미의 절대화를 거부하고 그것의 상대성을 내세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다원성, 이질성, 복수성이라는 다원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대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대적인 것들을 배격하면서 거부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다원(多元)’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사물을 형성하는 근원이 많으며 ‘유일무이’한, ‘절대성’을

가치는 요소들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이다. “원래 다원주의라는 말은 일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세계의 근원이 하나라는 생각 또는 하나의 가치가 하나의 공동체에 가장 우세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원주의는 반대한다” (이상형, 2013: 93).

다원주의의 개념에 대하여 김상범(2013: 136)은 “다원주의는 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른 종류의 선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서로 환원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원주의는 다른 모든 가치나 선이 그로부터 도출되는 단일한 최고의 가치(supreme value)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라고 서술하였으며 신승환(2013: 13)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성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기를, “다원성은 사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불리는 사조 자체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종교다원주의’는 중요한 이슈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정문선; 유재봉(2014: 116)은 종교다원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진리관의 특징은 진리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이고 맥락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종교도 예외는 아니다.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종교적 진리가 존재할 수 없으며, 상대주의에서는 개념상 진리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참/거짓, 우월/열등과 같은 가치판단을 할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가치관과 진리를 배격한다.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으며, 보편적인 사고방식은 편협하다고 보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분명한 가치와 기준이 상실되어 절대적인 기준과 보편적인 사고의 이해 또한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 또는 경험으로 이해되며 나아가 취향에 따른 사적 선택의 문제로 축소된다” (정문선; 유재봉, 2014: 116). 김성훈(2014: 96)은 “종교 다원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교들에 의하여, 그리고 우주적인 접근으로도 가능성을 말하고자 한다” 라고 하였는데 종교 다원주의 사상은 기존의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와해시키며 혼란을 야기한다.

길희성(2013: 178)은 종교다원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종교다원주의는 한편으로는 자기 종교만 옳다는 배타주의를 거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종교가 근거 없는 허위라는 세속주의도 거부하면서, 각 종교가 각자 제한된 형태로나마 진리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종교다원주의는 어떻게 하면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된 무수한 폭력과 증오의 문제를 신앙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해결책이다.”

종교다원주의는 비 기독교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기독교 신앙만이 절대적이며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허무주의적이고 회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만드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도 혼란을 야기 시키며, 이러한 상황을 종교다원주의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단편적으로 볼 때, 다원주의 사상은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한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의 혼란과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양산시키는 면도 배제할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 다원주의는 현대 사회에서의 가치중립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형성하면서 사회의 무질서와 종교다원주의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다원주의는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배타주의에 대응하여 관용과 배려, 존중에 기반 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심도 있게 살펴보면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 III.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사랑

#### 1. 성과 사랑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사랑에 대한 논의에서는 미셸 푸코(Michel Paul Foucault, 1926-1984)의 저작인 「성의 역사」를 중심으로 ‘성과 사랑’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하려고 한다.

푸코는 폭넓은 학문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비판하였다. 추상적인 이론이나 학설보다는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한 것이다.

Oksala(2013: 121)는, 푸코가 바라본 ‘섹슈얼리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푸코의 주장에 의하면, 성에 대한 근대사회의 일차적인 태도를 특징지은 것은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섹슈얼리티가 의학적, 법적 및 심리학적 담론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담론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담론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었다. 섹슈얼리티는 진리와는 서로가 떨어질 수 없도록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담론들은 우리가 가진 섹슈얼리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 관한 과학적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하였다.”

푸코는 당시의 사람들이 수면 위로 올리기를 주저하였던 ‘성’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성에 대한 담론은 이전의 철학자들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주제였지만 푸코는 이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푸코가 추구했던 목적은 어떻게 ‘성’의 과학적 개념이, 힘이 갖는 각기 다른 전략들 속에 나타나게 되었고, 또 그러한 개념이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Oksala, 2013: 132).

무엇보다 푸코에게 있어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그의 생애 전체를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푸코의 사랑과 윤리에 관한 논의 중 또 다른 축은 동성애와 관련한 논의” (김분선, 2017: 166)이며 그에게 ‘동성애’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는 동성애자이기도 했으며, 이 문제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1984년에 에이즈로 인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의 역사’에서도 동성애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푸코는 기독교에서의 성에 대한 관점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기독교의 교서는 성을 전형적인 고백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언제나 성을 섬뜩한 수수께끼로, 즉 끈질기게 모습을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서 모습을 감추는 것, 흔히 가장된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만큼, 누구나 들으려 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은밀한 현전現前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Foucault, 2018: 49).

이와 같은 푸코의 주장에 대하여 이정훈(2018: 27)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성적 금기의 출발인 기독교 문명의 해체를 위해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정치적 선명성 등의 이유로 동성애가 정치 투쟁과 혁명의 전략 전술로써 중요해 지는 것이고, 투쟁의 본질은 종교개혁으로 형성된 서구의 근대성과 이로 인해 형성된 자본주의를 해체하는 혁명과 해방에 있다.”

푸코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기독교를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며, 더 나아가 기독교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푸코의 철학은 해체주의나 후기 구조주의로 부를 만한 요소도 포스트모던이라고 표현할 요소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정훈, 2018: 59). 푸코는 여느 포스트모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진리와 이성을 거부하면서 개인의 가치판단과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성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푸코가 저술한 「성의 역사」는 그의 성에 대한 관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여주는 책으로, 푸코가 성에 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성의 양태와 푸코가 성에 대하여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푸코는 성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는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변방에서 소외되어 있던 아이들과 여성들, 동성애자들의 시각에서 성을 해석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푸코는 동성애의 옹호자였으며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에이즈 운동가인 ‘다니엘 드페르(Daniel Defert, 1937~)’ 라는 동성 연인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1984년 에이즈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성과 사랑의 문제, 특히 동성애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이어나갔으며 동성애자들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들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성과 사랑의 문제는 푸코의 연구로 인하여 일반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동성 간의 사랑으로 그 논의가 확장되었던 것이다.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았던 동성애의 문제 또한 다루면서 비정상이라고 단정 지었던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상대적이고 다원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성과 사랑의 문제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보편적인 사고방식과의 간극이 존재하였다고 하겠다.

## 2. 권력과 사랑

‘포스트모더니즘의 사랑’ 에서 미셸 푸코가 말하는 ‘권력과 사랑’ 은 기존에 있었던 권력이나 사랑의 개념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택균(2015: 12)은 푸코의 사상적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푸코의 사상은 오늘날 철학, 역사, 문학, 사회과학, 심지어 의학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푸코의 사상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서구 철학이 당연시 해온 이성과 계몽의 의미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이전까지의 철학적 논의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아니한 권력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푸코는 통치성과 권력에 대하여서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으며,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들과 그 권력 하에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푸코는 먼저 권력의 개념을 재정립한다. 기존의 개념에 따르면, 권력이란 어떤 집단이나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권력의 목적은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다. 푸코는 바로 이런 소유 가능한 것으로서의 권력 개념을 혁파하고자 한다. 권력은 단순히 권력을 가진 자가 나약한 자를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다. 권력은 사람과 제도의 일상적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일상적 관계 속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Mills, 2012: 73).

푸코는 권력이 가졌던 원래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권력관계의 틀을 정립하려고 하였다. 권력이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권력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권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푸코는 권력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사회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졌던 정신적인 문제와 성적인 문제, 감시와 처벌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는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권력의 문제와 내정 분석은 푸코가 권력과 통치에 대하여 연구하고 검토한 주제였던 것이다.

“우선 푸코는 권력에 대하여 명목론(nominalism)의 입장을 취한다. 말하자면 그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권력’으로 불렸던 권력, 예를 들어 국가권력, 주권(sovereignty) 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권력의 형태로 이해되지 않았던 각종 관계에 ‘권력’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 관계, 선생-제자, 의사-환자 관계 등, 일반적으로 ‘사랑’을 핵심으로 이해했던 관계들을 권력으로 보여주었다” (최정운, 2000: 64).

푸코는 ‘사랑’의 개념으로 여겨졌던 관계들에도 ‘권력’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이해 관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 부여된 힘이나 권력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적 관계 혹은 공적 관계 또한 권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푸코의 이러한 분석은, 공적 혹은 사적인 관계에도 권력의 틀을 만들고, 그 장치 안에서 푸코의 권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푸코는 권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치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들 또한 권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으며 심지어 ‘사랑’이라는 감정적인 요소에도 권력관계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였다. 권력과 사랑에 대한 푸코의 분석은 권력이 사회 전반에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권력이 현재에도 사회의 다방면에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 IV.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사랑에 대한 교육적 함의

##### 1. 성과 사랑에 대한 교육적 함의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성과 사랑, 그리고 그에 대한 교육적 함의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세속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랑에 대한 왜곡된 관점들을 살펴보면, 결혼

에 대한 비 신앙적인 가치관, 동성애 등이 있는데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고대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존속되어 왔으며 전 세계의 화두로 찬반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성옥(2017: 349)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현대사회는 포스트모던의 과정에 있다. 그것은 ‘성’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보통 일반적이라면 우리는 이성끼리, 즉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랑에 다양성이 추구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와 성경적인 가치관에 반하여 그릇 행하였으며, 하나님을 주신 명령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 견해와 주관에 따라 세상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동성애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동성애에 대한 지지와 옹호로 이어졌다. “푸코는 성 지향성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제도와 담론이 수행하는 결정적 역할을 우선시하였으며 생물학적 기원보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김희수, 2007: 5-6).

푸코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 관념과 의식, 견해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상적인 성 의식이 무너지고 성 윤리와 그에 대한 기준이 와해되며 그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 반목을 야기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였다. 즉 푸코의 성에 대한 입장은 기독교에서의 성에 대한 금기사항들로 인하여 종교적인 문제와 결부되면서 성적인 문제가 터부시되어 왔으며 그러한 문제를 가진 개인들이 차별과 편견에 갇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기독교 윤리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인식한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가치관 또한 혼란스럽게 만든다. 성 윤리의 해체로 인하여 인간은 성적 타락을 겪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이는 사회 질서의 혼란뿐만 아니라 신앙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일에도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 또한 성적 금기를 어기고 역행하는 일인 것이다.

이성이 아닌 동성과의 사랑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으며,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성경말씀을 지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와 같은 질병을 초래한다. 또한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볼 때 성의 윤리는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혼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탄생하는 것인데 세속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동성애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고린도전서 13장 5-6절에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동성애는 생명이 없는 사랑이다.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며 죄로 관영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의 사랑인 것이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랑이다.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는 행위이다. 변영인(2008: 193)은 이러한 성 윤리의 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오직 예수의 현존이 의식될 때만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깊게 할 수 있고 그들에게 깊은 내적 평화를 안겨줄 수 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사랑이나 자기 본위의 쾌락이 아니라, 그들을 각자의 고립에서 일치로 이끌어줄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사랑으로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구해야 하겠다. 특히 기독교교육자들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하고 인간에 대한 회복의 역사를 수행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 2. 권력과 사랑에 대한 교육적 함의

본 장에서는 ‘푸코의 권력과 사랑에 대한 교육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아울러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푸코가 논의한 ‘권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권력이 가진 교육적인 함의와 신앙적인 관점, 그리고 교사로서의 자세와 학생을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하여 다루려고 한다.

푸코가 말한 권력의 개념에 의하면 “푸코가 일생일대를 바쳐 연구한 권력이라는 주제는 하나의 목적론을 가지고 제기되는 것이 아닌, 인간 사회 곳곳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미시적인 권력관계이다” (정보영, 2018, 141) 라는 것이다. 푸코는 권력이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장(場)에서 행사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권력은 세분화된 집단들 안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손흥숙(2021: 143)은 “통치성 개념은 교육정책과 통치와의 관계, 국가의 권력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권력과 지식의 관계, 권력과 주체의 관계 등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쟁점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교육 정책 또한 통치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교육 또한 통치성과 연결되며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일에도 권력과 통치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교육적인 면에서 통치성에 대하여 바라본다면 “통치성 개념은 사고(thought)와 통치(government)를 통합한 것으로 교육 쟁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교는 사고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손흥숙, 2021: 142). 이처럼 교육에도 푸코의 권력과 통치성의 문제가 기능하는데 손흥숙(2021: 150)은 그러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Foucault는 국가를 하나의 통일된,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진, 전능한 권력을 가진 지

배자로 보는 것을 거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 분석에서, 국가는 교육정책의 입안자로서 중요한 권력의 주체이거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재정적 지원자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과 권력을 어떻게 재정의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한다.”

국가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는 교육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교육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행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육에 개입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것이다.

이동성(2009: 296)은 교육에도 권력이 개입되어 자연스럽게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길들이는 권력은, 학생들로부터 무언가를 강탈하는 방식으로 교육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훈육을 위해 여러 가지 규칙과 강제가 반복적으로 동원되지만 푸코가 보기에 그것은 그들의 신체위에 지식과 능력을 세는 것이다. 즉 규칙과 규율이 권력작용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몸에 스며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해 놓은 규율이 권력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칙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권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강제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의 학교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지켜야 하는 의무로 인식하도록 한다.

푸코에게 있어서 권력에 대하여 말할 때에 ‘힘’이라는 개념을 형성하고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었다. 그는 기존의 학교 교육에 대하여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Foucault에 의하면 학교교육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서 지식의 내용을 구성하여 이를 규범화하여 학생들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텍스트로서 시험을 보게 함으로서 학생의 정체성을 획일적으로 형성하는 훈육적인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아와 지식은 주체를 둘러싼 관계에서 구성되는 것으로서 관계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다양함은 현대 사회의 특성이자 가치로서 다원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통해 비판적인 대화와 협동을 통한 상호공존을 위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Foucault의 힘과 지식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훈육적인 기술을 좀 더 현실에 맞게 변형할 것과 지배적인 담론이외에 다른 담론도 인정하는 관용적인 태도의 함양을 교육적

으로 요구한다” (신은미, 2004: 346).

푸코는 교육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이전보다 더 다원화된 교육과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전의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교육이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교육이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교육은 이러한 것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논점을 가지고 관점의 다양화와 여러 분야와의 상호작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푸코가 제안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율성과 개방성이 강조되고, 여러 가지 세계관에 대한 포용력과 관대함을 가지는 것, 그리고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든 이를 인정하며 존중해주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자면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상식선에서 다소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즉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들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교육이라고 사료된다. 이처럼 푸코는 권력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이를 교육에도 연결시켰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말하는 교육은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교육적 이상과 전혀 다른 선상에 놓여 있다. 기독교교육은 세속적인 지배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의 사랑을 타인들에게 전해 주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 V.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논의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사랑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반 기독교적인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사랑의 기준과 가치관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반하여 기독교적인 관점과 교육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살펴본다면 고수진(2021: 427)은 “사랑은 그 자체로 다른 어떤 인생의 의미, 목적 보다 인생을 인도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므로 영적 친밀감을 배움으로써 인생의 궁극적 목적, 사랑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고수진, 2021: 427) 라고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사랑의 본질에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강용원, 2015: 190).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바로 ‘아가페’이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사랑인 것이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아가페를 통하여 인류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다. 이는 인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랑이며,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우리가 아가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사람이 가진 가치를 계산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께 가치가 있기에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해야만 한다.” (Thielicke, 2015: 159).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사랑을 행하는 일에 계산적이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특히 21세기의 현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먼저 교사 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이해하고 이에 준행하는 삶을 살면서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생들을 위하여 교사로서의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구해야 하겠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지만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불안전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규남, 2004: 33)는 것이다.

Olthuis, 2012: 6)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새롭고 풍부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이나 맹목적인 기회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에 의해 살고 있다는 것을 내게 상기시킨다. 이러한 사랑의 비전은 기독교 포스트모던 세계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의 핵심을 요약한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겸손함 속에서 목격하는 비전으로, 진실을 소유한 사람들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폭에 압도되어 다른 사람들을 공유하고 참여 하도록 초대하는 사람들로서 말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더 확장시킨 범위에서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소명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하겠다.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그래서 사랑은 지배권을 갖는다” (Olthuis, 2012: 7).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하는 소명을 부여받으므로 현재의 상황은 세속적인 환경이 지배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존 하시다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다.

## VI. 결 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여 불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또한 성경에

서 말하는 절대적인 명령과 계명과는 반대로 자신의 편의와 유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움이 아닌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자유분방함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하겠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거나 세상적인 세계관을 좇기보다는 이에 대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별하는 힘과 지혜를 구하여야 하겠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지키도록 노력하며 힘써야 한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간의 노력과 열의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동력을 구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명확히 확립하지 않는다면 교육에 대한 신앙적 관점과 그에 기초한 교육철학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교육자들은 개혁주의에 기초한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후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형성한다는 중요한 과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다. 다원화된 21세기 현대 사회의 혼란 가운데서도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교육은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기독교교육자들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과 현실의 벽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내와 겸손,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후대들을 위하여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다. 교육자로서의 사명, 후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사랑을 가지고 교사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면서 후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Olthuis, J. H. (2012). *A vision of and for love: Towards a Christian post-postmodern worldview*.  
Koers - Bulletin for Christian Scholarship Vol. 77, No. 1.
- 강용원 (2015). “목회상담과 사랑: 고전 13장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73(-). 190.
- 고수진 (2021). “섹슈얼리티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을 위한 기독교적 성 교육.” 『장신논단』  
53(5). 427.
- 길희성 (2013).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 서울 : 휴(休).
- 김분선 (2017). “푸코의 배려 주체와 자기 배려의 윤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상범 (2013). “자유주의적 관용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석환 (2019). “니체의 『안티크리스트』의 예수관과 인간관 비판 II.” 『칼빈論壇』 Vol.- No.39. 칼빈대학교. 134.
- 김성훈 (2014). “개혁주의 경건리더십 연구: 한국교회 영성과 리더십 위기와 패러다임 전환.”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용찬 (2000). “니체와 포스트모더니즘.” 『정치사상연구(The Korean review of political thought)』 Vol.2 No.-. 한국정치사상학회. 273.
- 김희수 (2007).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고찰 : 동성애는 죄인가?.” 『기독교사회윤리』 Vol.13.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Korean Christian Social Ethics Society). 5-6
- 박상진 (2011). “한국기독교교육학회의 미래 전망과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Vol.27 No.- . 한국기독교교육학회. 47.
- 변영인 (2008). “기독교 복음주의적 접근으로서의 성(性)교육.” 『복음과 상담』 Vol.6.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193.
- 손홍숙 (2021). “교육정책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로서 Foucault의 통치성.” 『教育學研究(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 한국교육학회 Vol.59 No.5. 142, 143, 150.
- 신국원 (2013). “기독교 학문의 비전 - 가능성과 필요성.” 『신앙과 학문(Faith & Scholarship)』 Vol.18 No.4. 기독교 학문 연구회(Korea Christian Studies institute). 45.
- 신성욱 (2017).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동성애와 설교학적 대안.” 『성경과신학』 Vol.81 No.-. 한국복음주의신학회. 349.
- 신승환 (2013).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경기 : 살림. 13.
- 신은미 (2004). “포스트모더니즘의 교육적 함의 : Foucault의 '힘'(power)을 중심으로.” 『京福論叢』 Vol.8. 경북대학(Kyung Bok College). 346.
- 양승권 (2007). “니체와 장자의 윤리적 상대주의는 가치의 박탈인가, 초월된 가치인가?.” 『니체연구』 Vol.12. 한국니체학회(Koreanische

- Nietzsche Gesellschaft). 104.
- 양주혜 (2020). “구조주의적 방법에 기초한 기독교유아신앙교육 실제에 관한 연구 : 유아 예배의 설교, 찬양, 기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 이상형 (2013). “다원주의의 성공과 실패 : 자유주의적 공동체.” 『사회와 철학』 vol., no.26. 사회와철학연구회. 93.
- 이정훈 (2018).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경기 : 킹덤북스.
- 이택균 (2015). “푸코의 신체관을 통한 스포츠의 방향성 탐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 인유진 (2020). “버나드의 하나님 사랑과 실천신학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웨스트민스터 대학원대학교.
- 임설희 (2015). “셰익스피어 극의 해체주의적 읽기.”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정규남 (2004). “21세기에 있어서 십계명의 의미와 규범성.” 『光神論壇』 Vol.13 . 광신대학교. 33정문선; 유재봉 (2014).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종교교육 : 한국에서의 종교교육 가능성 탐색.” 『신앙과 학문(Faith & Scholarship)』 Vol.19 No.3. 기독교학문연구회 (Korea Christian Studies institute). 116.
- 정소영, 이연임 (2020).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 서울 : 도서출판 렉스.
- 조성국 (2016). “한국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개인의 신앙성숙과 공공성.”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638.
- 조성국 (2019). “기독교세계관 형성을 위한 기독교학교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 생명의 양식.
- 주재홍 (2013). “학교지식에 대한 해체적 탐구.” 『인격교육』 Vol.7 No.3. 한국인격교육학회. 117.
- 한국프랑스철학회 (2020). “현대 프랑스 철학사 2.” 과주 : (주) 창비.
- 한미라 (2013).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교육: 상생인가 해체인가?.” 『기독교교육정보』 vol., no.36.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17-18.
- Brummelen, H. V. (2002).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이부형 역 (2010).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 서울 : IVP.
- Derrida, J. (1972). *Déconstruction*.  
김보현 편역 (1996). 『해체』. 서울 : 文藝出版社.
- Foucault, M. P. (1966). *Les mots et les choses*.  
이규현 역 (2012). 『말과 사물』. 서울 : 민음사.
- Foucault, M. P. (1976). *Histoire de la sexualité, vol. 1, La volonté de savoir*.  
이규현 역 (2018). 『성성의 역사1 : 지식의 의지』. 과주 : (주) 나남.
- Hollingdale, R. (1999). *Nietzsche: The Man and his Philosophy*.  
김기복 · 이원진 역(2018). 『니체-그의 삶과 철학(특별보급판)』. 서울 : 북캠퍼스.
- Mills, S. (2003, 2004). *Michel Foucault*. 임경규 역 (2012). 『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

- 서울 : 도서출판 엘피.
- Mouw, R. J. (1992). *Uncommon Decency*. 홍병룡 역 (2014). 『무례한 기독교』 . 서울 : IVP.
- Nietzsche, F. W. (1888-1889). *Der Fall Wagner.Go'tzen-Da'mmerung.Der Antichrist*.  
*Ecce homo.Dionysos-Dithyramben.Nietzsche contraWagner*  
*(Nietzsche Werke, KGW VI 3)*.  
 백승영 역 (2002). 『바그너의 경우.우상의 황혼.안티크리스트. 이 사람을 보라.디오니소스 송가. 니체 대 바그너 (1888~1889)』 . 서울 : 책세상.
- Oksala, J. (2007). *HOW To READ FOUCAULT*. 홍은영 역 (2013).  
 HOW TO READ 푸코. 서울 : 웅진지식하우스.
- Peeters, B. (2010). *DERRIDA*. 변광배, 김중현 역 (2019). 『데리다, 해체의 철학자』 . 서울 : 그린비.
- Thielicke, H. (1996). *Sex, Ethik der Geschlechtlichkeit*.  
 김재철 역 (2015). 『성 윤리학』 . 서울 : 새물결플러스.

## 논문초록

21세기는 이전의 핵심적인 가치관이었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모더니즘(Modernism)’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성보다는 ‘감성’,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나 기준보다 개인의 가치관과 각자의 개성을 피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며 이러한 사상이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하였으며 개인적인 감정과 표현이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졌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장과 근거보다는 개인의 생각과 견해가 우세하였던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모더니즘 사상과는 반대로 개인의 감정과 그에 기반 한 가치관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이 사상은 현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색채가 드러나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구조주의, 상대주의, 해체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등이 중심적 가치관으로 기능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먼저 구조주의는 주체의 자리에 ‘구조’를 대체하려고 하였는데 비단 학문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주체를 상실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상대주의는 개인의 생각과 주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자 그대로 ‘상대(相對)’적인 것들을 인정한다. 또한 이와 상반된 지점에 있는 ‘절대(絶對)’적인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각자의 판단과 견해, 사상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해체주의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사상의 토대와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며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적인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기존에 존재했던 이성적인 사고방식과 관습, 인식보다는 개방적인 가치관으로 사회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다원주의는 현대 사회에서의 가치중립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한 혼란과 종교다원주의를 야기하였다. 다원주의는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배타주의에 대응하여 관용과 배려, 존중에 기반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심도 있게 살펴보면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사랑에 대한 관점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는 매우 상이하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반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기반 하여 사랑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설파하였다. 푸코는 동성애를 옹호하였는데, 바로 그 자신이 동성애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기독교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반 기독교적인 사상들이 포스트모던 사회를 형성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상기한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의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산재한 문제를 바로 잡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독교적 가치의 바른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도 사랑은 중요한 가치로 기능한다. 기독교교육자들은 세속적인 사회와 비윤리적인 문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이다. 이는 세상의 어떠한 사랑도 채워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사랑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사랑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이 21세기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지만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사랑을 가지고 교사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교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의 사랑을 타인들에게 전해 주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교육자로서 후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하여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